

9일 Market Index			
코스피	3133.74	코스닥	790.36
	(+18.79)		(+6.12)
금리 (미국 9년)	2.478	환율 (원·달러)	1376.65
	(+0.001)		(+8.75)



현지생산·MRO까지… K-방산 패키지 수출 전폭 지원

〈유지보수〉

▶ “방산 세계4대 강국 도약”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 정책금융·세액감면 등 추진 올해 200억 달러 수출 기대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을 찾는 손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목표를 내걸었다.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금융지원,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세액 감면 등으로 총력 지원해 K-방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조성한 우호적인 수출 환경으로 K-방산 업체들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기술이전·유지보수(MRO)까지 포함된 전략적 패키지 수출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방위산업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정상외교를 활용한 무기 세일즈 외교 강화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성장엔진을 동시에 잡기 위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

울일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이 목표치 200억 달러(약 28조4000억 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더브콜’을 강하게 보내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수주 실적도 가파른 상황이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9월 이라크 국방부와 천궁-Ⅱ(M-SAM)를 28억달러(3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천궁-Ⅱ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히트-투-킬’ 방식 중거리 방공 체계다. LIG넥스원은 UAE·사우디에 이어 중동 세 번째 조 단위 고객을 확보하면서 방공포대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인도와 3714억원 규모의 K



폭염에 전력수요 급증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가 95.7GW를 기록하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뉴스

9 155mm 자주포 추가 수출 2차 계약에 서명했다. 1차(2017년) 계약보다 현지 부품 국산화 비

율을 50%에서 60%로 끌어올렸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초고령 사회, 자산관리 전략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행사명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 주 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일 시 : 7월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40~ 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문의 및 참가 신청 :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더 얇고 똑똑해졌다… ‘갤Z 폴드7·플립7’ 공개

▶ 삼성 ‘갤럭시 언팩 2025’ AI 중심 사용경험 극대화시켜 텍스트·음성·이미지 동시 이해

삼성전자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 하우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을 동시에 공개했다. 더 얇고 가벼운 디자인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결합해폴더블폰 사용 경험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제품의 핵심은 ‘AI 중심 사용 경험’이다. 삼성의 갤럭시 AI는 텍스트·음성·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정보 검색·사진 편집·일정 관리 등을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구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초슬림 대화면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을 공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글과 협력한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은 대화형 검색과 카메라 기반 도움 요청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폴더블 시리즈 중 고성능 모델인 갤럭시 Z 폴드7은 삼성의 폴더블폰 가운데 가장 얇고 가

벼운 제품으로, 접었을 때 두께는 8.9mm, 펼쳤을 때는 4.2mm이며 무게는 215g이다. 전면에는 6.5형 커버 디스플레이를, 내부에는 8.0형 대화면을 탑재해 몰입감 있는 멀티태스킹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2억 화소카메

라와 웰컴의 최신 칩셋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더해 강력한 영상 편집과 생성형 AI 성능을 구현했다.

갤럭시 Z 플립7은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가4.1형으로 넓어지면서도 접었을 때 두께는 13.7mm, 무게는 188g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시리즈 최초로 4,300밀리암페어시(mAh) 대용량배터리를 탑재하고, ‘삼성 텍스’ 기능을 지원해 외부 모니터와 연결한 멀티태스킹도 가능하다. 닫은 상태에서 문자 확인, 음악 재생, 셀피 촬영이 가능하며, 줌 슬라이더나 듀얼 프리뷰 기능도 탑재해 셀피 특화 기능을 강화했다.

보안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4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정규직 임금 첫 400만원 돌파하나

비정규직 격차 더 벌어져 올해 200% 넘을 가능성

올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역대 처음으로 400만원대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또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200%까지 치솟을지 여부도 국내 고용시장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받은 액수는 비정규직의 185%에 달했다.

그간 통계청은 매년 10월 중 하순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또 이 둘의 합)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월평균 임금을 산출한다.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22년)의 362만3000원에 비해 4.78% 오른 수치다.

올해도 작년과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5년도 임금은 18.14원 오른 397만7000원을 기록하게 된다. 또 이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경우, 최소 5.4%(+20.49원)만 올라도 400만원 선을 돌파한다.

정규직 임금은 2007년(200만7000원)에 200만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5~6년마다 50만원씩 늘어났다. 50만원 단위의 도달 주기는 짧아질 전망이다. 재작년에 350만 선을 넘는 이후 2~3년(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만에 400만원대에 올라선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대를 찍었다.그러나정규직에 비해 더딘 오름세를 보여 왔다. 이런 흐름 속에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정부 “‘귀환 희망’ 北 주민 6명, 해상으로 안전 송환”
 ▶김병기 “정보통신 발달은 기회이자 도전… 언론 역할 중요” /사진 뉴스스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 남편, ‘농지법 위반’ 의혹
 ▶윤희숙 “국민 눈높이 혁신안 마련… 지도부, 망할 작정 아니면 받아들일 것”

▶박근혜 비공개 기록물 7784건 해제… ‘세월호 7시간’ 빠져
 ▶홍준표, 국힘 비난 “혁신은 무슨… 또 대국민 사기칠 것”